

실책=실점... KIA, 한끗 수비에 놓치는 승리



바티 '감격의 정상'

엘리트 선수서 크리켓 외도
테니스 복귀 3년만에
프랑스오픈 女 단식 우승



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인 프랑스오픈 테니스 대회 여자단식에서 우승한 에슬리 바티(23·호주)는 독특한 이력을 지닌 선수다.

바티는 15살 때인 2011년 윌블던 주니어 단식에서 우승했고, 17살인 2013년에는 호주오픈, 윌블던, US오픈 여자복식에서 모두 준우승을 차지할 정도로 유망주였다.

장밋빛 미래가 보장될 것 같았던 바티는 그러나 2014년 말에 갑자기 '테니스를 그만하겠다'고 밝혀 주위를 놀라게 했다.

18살 어린 나이에 라켓을 내려놓기로 한 그는 호주의 프로 크리켓팀에 들어가 '제2의 인생'을 살기로 했다. 당시 그는 잦은 외국 대회 출전 등으로 인해 향수병에 시달린 끝에 테니스와 이별했다.

하지만 그는 2016년 초에 다시 테니스 코र्ट로 돌아왔고, 복귀 후 약 3년 만에 메이저 대회 정상에 오르는 감격을 누렸다.

8일(현지시간) 열린 프랑스오픈 여자단식 결승에서 마르케타 본드로소바(38위·체코)를 2-0(6-1 6-3)으로 제압한 바티는 우승을 확정짓는 뒤 크리켓 선수로 잠시 '외도'했던 때에 의미를 부여했다.

바티는 "내가 그때 잠시 테니스를 그만두지 않았다면 지금 이렇게 여기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을지 모르겠다"며 "그 경험도 내 삶의 일부고, 당시로써는 최선의 결정이었다. 나는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고, 인격적으로 더 성숙해질 시간이 필요했다"고 이야기했다.

이번 우승으로 세계랭킹 2위까지 오르는 바티는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새로워졌다"고 '테니스 휴식'의 의미를 강조하며 "내가 가진 기량을 잘 발휘하면 세계 정상급 선수들과도 겨룰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사실 바티의 우승에는 대진운도 따랐다. 그는 결승까지 7경기를 치르면서 시드를 받은 선수를 딱 한 차례 만났다.

8강에서 매디슨 키스(14위·미국)를 한 번 상대했고 나머지 6경기는 모두 30위 밖의 선수를 물리쳤다.

키 166cm로 큰 편이 아니지만 바티는 이번 시즌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에서 서브 에이스 143개로 전체 6위, 서브 게임 승률 77.3%로 5위에 올라 있을 만큼 서브에 강점이 있는 선수로 평가된다.

올해 1월 호주오픈에서 생애 처음으로 메이저 대회 단식 8강까지 오른 바티가 '메이저 쉼'으로 우뚝 선 이후에도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7월 윌블던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



지난주 두산·NC전 3연속 위닝시리즈 실패
악송구·베이스 커버 부실 등 실수 속출
1점차 박빙 승부에 치명적... 집중력 절실

KIA 타이거즈가 하위권에서 탈출하려면 '수비'부터 잡아야 한다.

KIA는 지난 한 주 '우승 후보' 두산 베이스와 3위 싸움을 하는 NC 다이노스와 만만치 않은 승부를 벌였다. 그리고 반전을 이루지 못하면서 세 시리즈 연속 위닝 시리즈에 실패했다.

승보다 많은 패가 기록되는 동안 팀의 결정적인 실책도 함께 쌓였다. 지난 5일 KIA는 두산에 기분 좋은 역전극을 연출했다.

1회초 2실점은 했지만 이어진 1회말 공격에서 최형우의 그라운드 홈런 등을 앞세워 바로 3-2로 승부를 뒤집었다.

리드는 오래가지 못했다. 2회초 KIA 선발 차

명진이 몸에 맞는 볼로 선두타자 김재호를 내보냈다. 아웃카운트 2개까지는 잘 잡았지만 2사 2루에서 포수가 공을 놓치면서 2사 3루. 그리고 박건우의 중전안타로 3-3 동점이 됐다.

패스트볼이 아니었다면 주지 않아도 될 점수였기 때문에, 이 실점은 차명진의 비자책점으로 기록됐다.

이보다 더 아쉬운 장면은 4-4로 맞선 8회초에 나왔다. 1사 1·3루에서 두산 류지혁의 땅볼 타구가 1루로 향했다.

바로 송구하면 홈에 들어오던 주자를 잡을 수 있었지만 1루수 김주찬은 더블 플레이를 시도했다. 공을 잡은 김주찬은 뒷걸음질 쳐 베이스를 밟

은 뒤 홈으로 공을 던졌다. 하지만 공은 포수를 빗나갔고 더블 플레이가 아닌 실책이 만들어졌다. 경기는 4-5 패배로 끝났다.

7일 NC와의 팽팽하던 승부에서도 아쉬운 실책이 나왔다.

0-0으로 맞선 6회말 KIA 월랜드가 선두타자 박민우에게 중전안타를 허용하자 NC가 보내기 번트를 시도했다. 2루로 승부를 하면 주자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3루수 최원준의 악송구가 나왔고, 무사 1·3루가 됐다. 그리고 노진혁의 희생번트에 이은 모창민의 희생플라이로 '0'의 균형을 깨졌다.

역시 이번에도 실책이 없었다면 기록되지 않았을 '비자책점'이었다.

반대로 KIA는 상대의 견고한 수비에 득점을 뺏기기도 했다.

0-1로 뒤진 8회초 선두타자 김주찬이 우중간 2루타로 출루한 뒤 김선민의 번트로 3루로 향했다. 그리고 안지홍의 타구가 좌익수 앞으로 향했다. 득점이 기대되는 상황이었지만 상대의 빠르

고 정확한 중계 플레이에 김주찬이 아웃됐다. 그리고 이 경기는 9회 KIA 최형우와 NC 모창민의 한방 싸움 끝에 KIA의 1-2패로 끝났다.

8일 4-5, 1점 차 패배에도 역시 실책이 함께했다. 0-1로 뒤진 4회초 2사 만루에서 KIA 선발 홍건희가 밀어내기 볼넷을 허용한 뒤 2루 견제를 하면서 악송구를 했다. 실책은 실점으로 연결됐다.

'강척'들을 잡을 수 있던 순간 KIA는 실책으로 주지 않아도 될 점수들을 줬다.

KIA는 수비가 약점으로 꼽힌다. 결정적인 순간의 실책은 물론 약속된 플레이에서도 호흡이 맞지 않거나, 기본적인 베이스 커버도 이뤄지지 않는 등 아쉬운 수비 장면이 속출하고 있다.

KIA는 지난 한 주의 패배 순간을 곱씹으면서 '생각하는 수비'를 숙제로 삼아야 한다.

다음 장면을 생각하면서 차분하게 승부를 하는 수비수들의 집중력이 절실한 KIA의 우울한 2019시즌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양현종 'KBO 5월의 선수'

6경기 4승 2패... 승리·탈삼진 '2관왕'

KIA 타이거즈의 '에이스' 양현종이 KBO리그 5월 MVP에 등극했다.

양현종이 KBO와 KBO 리그 타이틀스폰서인 신한은행이 공동 시상하는 2019 신한은행 MY CAR KBO 리그 5월 MVP에 선정됐다.

2019 KBO 리그 월간 MVP는 한국야구기자회 기자단 투표와 신한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신한SOL' (솔)에서 진행한 팬 투표 결과를 각각 50% 비율로 합산한 총점으로 최종 선정된다. 투표 결과 양현종은 기자단투표(29표 중 19

표)와 팬 투표(7만9246표 중 4만9874표)에서 모두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며 64.23점을 받았다. 이와 함께 양현종은 2017년 7월 이후 1년 10개월 만에 KBO 리그 월간 MVP가 됐다.

양현종은 NC 다이노스 양의지(21.01점), SK 와이번스 산체스(8.35점), 롯데 자이언츠 이대호(6.41점)와 5월 MVP 대결을 벌였다.

양현종은 5월 2일 광주 삼성전부터 5월 31일 광주 키움전까지 총 6경기에서 선발 출장해 4승 2패를 기록했다. 2패도 각각 7이닝 1실점의 호투

에도 타선의 지원을 받지 못해 기록된 아쉬운 패배였다.

5월 전 경기에서 퀄리티스타트를 하며 팀의 상승세에 큰 역할을 한 양현종은 승리 1위(SK 산체스와 공동), 탈삼진 1위(44개)로 2관왕을 차지했다. 평균자책점은 1.10으로 2위의 기록이다.

또한 양현종은 5월 한 달 6경기에서 41이닝을 소화하면서, 지난 5월 31일 키움전에서는 개인 통산 1700이닝을 달성하기도 했다.

5월 MVP 선정된 양현종에게는 상금 200만원과 60만원 상당의 신한은행 골드바가 부상으로 주어진다.

신한은행 후원으로 양현종의 모교인 광주 동성중에도 100만원 상당의 기부금이 전달될 예정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최혜진 KLPGA 시즌 3승 선착

에쓰오일챔피언십... 상금 1위

최혜진(20)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올해 처음 3승 고지에 오른 선수가 됐다.

최혜진은 9일 제주도 제주시 열린시안 제주(파 72-6553야드)에서 열린 KLPGA 투어 제13회 에쓰오일 챔피언십(총상금 7억원) 대회 이틀째 최종 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6개를 기록했다. 최종합계 12언더파 132타의 성적을 낸 최혜진은 공동 2위인 장하나(27)와 박지영(23)을 1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 상금 1억 4000만원과 이 대회 우승자에게 주는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4월 KLPGA 챔피언십, 5월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최혜진은 시즌 3승을 달성했다.

이번 시즌 아직 2승을 한 선수도 없는 상황에서 3승을 따낸 최혜진은 KLPGA 투어에서 통산 7승을 기록했다. 이 7승에는 2017년 아마추어 자

격으로 거둔 2승이 포함됐다.

최혜진은 또 이번 우승으로 시즌 상금 5억2709만원을 벌며 상금 1위 자리를 굳게 지켰다. 지난 시즌 8억2229만원으로 상금 4위에 오른 최혜진은 2년 연속 상금 5억원을 돌파했다. 이번 대회는 3라운드 54홀로 열린 예정이었으나 7일 짙은 안개로 인해 1라운드가 취소, 8일과 9일 이틀간 36홀 스트로크 플레이로 우승자를 정했다.

전날 1라운드에서 6언더파 66타로 선두에 2타 뒤진 공동 4위였던 최혜진은 이날 2라운드를 시작하기도 전에 선두와 격차가 4타로 벌어졌다.

오전 6시 40분에 일찍 출발한 전우리(22)가 이날 7타를 줄이는 맹타를 휘둘러 10언더파로 선두에 오른 가운데 먼저 경기를 끝냈기 때문이다.

정오에 경기를 시작한 최혜진은 그러나 전반 9개 홀에서 3타를 줄이고, 11번과 12번 홀 연속 버디를 낚으며 조용히 추격전에 나선 끝에 1타 차 단독 선두에 올랐다.

/연합뉴스

동강대 타선 대폭발...U리그 왕중왕 '성큼'



21·22일 호원대·한려대와 4·5차전

동강대학교가 타선의 집중력을 앞세워 U리그 왕중왕전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동강대 야구부(사진)는 최근 순천팔마구장에서 열린 '2019 KUSF(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대학 야구 U리그' 후반기 D조 세한대와 3차전에서 12-4, 7회 월드게임 승을 거뒀다. 0-2로 뒤진 5회, 타선이 집중력을 발휘하며 빅이닝을 만들었다.

동강대는 상대 마운드가 흔들리면서 볼넷 3개와 폭투를 얻어냈고 이찬영의 3루타, 최원영의 홈런 포 등 장단 4안타를 터트리며 역전승을 연출했다. U리그 왕중왕전은 전·후반 리그 성적을 합산해 조 3위까지 진출할 수 있다. 동강대는 U리그 전반기 4승 2패, 승점 8점으로 3위를 기록했다.

동강대는 오는 21일과 22일 각각 호원대, 한려대와 4·5차전을 치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